



IT 외래어 표기법 통일 불가능한 일인가 외국어를 그대로 써야 이해가 쉽다?

2-1

컴퓨터 전문지 제작 초기에 데이터와 데이터, 파일과 화일을 놓고 싸웠고 시스템과 시스뎀, 디지털과 디지털이 충돌한 적이 있다. 한 5년 전에는 인터넷으로 쓸 건가, 인터네트로 쓸 건가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다. 고유명사까지 흔들려는 쪽도 있었다. 데이콤의 옛 이름인 한국데이터통신을 놓고 데이터가 표기법에 맞으니 한국데이터통신으로, 컴팩에 인수된 디지털(DEC)도 한국디지털로 써야 한다고 우기기도 했다.

떨 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알아냈다는 사람은 뉴턴인가, 뉴턴인가? 아니면 뉴턴? 음악가 '바하'와 '바흐', 화가 '고흐'와 '고호'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꽤 될 것이다. 외국에선 한 사람일텐데 우리나라에 오면 이름이 몇 개로 늘어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래어 표기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읽고 쓰는 게 가장 알맞다고 정하고 표기할 것을 권하는 게 외래어표기법이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홍보가 잘 안돼서 아직까지 희한한 표기가 존재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모든 외국어는 우리말글로 번역해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번역하기 어려운 고유명사나 약자, 외국어 같은 외래어가 넘치고 있어서 적는 법을 알아야 한다. 외래어는 본디 우리말에 없었던 말로 외국서 들어온 말이다. 외래어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표기법대로 읽거나 적어주면 고민할 것이 없다. 1986년에 외래어표기법 규정을 만든 후, 계속 새로 등장하는 용어들을 표기하는 방법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

르면 간단하다.

이 표기법은 교과서에 즉시 반영되고 있고 신문이나 잡지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글 24글자만으로 적게 돼 있고,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일곱자만 쓰게 돼 있다. 그리고 파열음(p, t, k)이나 마찰음(s, h) 표기는 된소리(ㄱ, ㄷ, ㅌ, ㅈ)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 빠리나 까스라고 써선 안 된다는 식이다. 물론 중국말 표기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리고 껌이나 빵, 남포처럼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그대로 인정한다.

외래어표기법은 맞춤법보다 예외가 많다. 인터넷을 인터네트라고 표기해도 규정상으로는 잘못된 게 없고, 아웃사이드나 아우트사이드, 셋이나 세트나 둘 다 맞는 표기다. 이럴 경우 표기자가 하나만 쓰기로 내부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어김없이 지켜나가면 된다. 이것을 헛갈려할 독자는 아무도 없다.

부적절하게 바뀐 영어나 약어도 문제

미디어의 발달, 특히 인터넷 때문에 세계는 좁아졌고 결국 미국 문화의 위세는 갈수록 막강해진다. 미국과 한국이 떨어

진 거리는 너무 좁아졌고 시차도 없어졌다. 미국 문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필터링' (거름의 과정이라고 표기하면 어떨까)은 사실상 사라졌다. 우리 생활에서 영어는 더 이상 번역되거나 외래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영화 제목 못지 않게 영어가 곧바로 통하는 곳이 바로 정보기술(IT) 산업계다. 새로운 단어들이 시시각각 생겨나기에 조금만 한눈을 팔면 시대 조류에 뒤쳐지는 곳이다. 전자메일에 익숙해진 탓에 전자우편이란 말이 낯설게 들리고, 무엇이 있는 곳인 장소보다는 사이트가 더 친근하다. 기업이나 회사보다는 엔터프라이즈가 공용어처럼 쓰인다. 영어 스펠링이 한글이라는 문자로 변했을 뿐, 영어가 자연스럽게 한글과 혼용되는 곳이 바로 IT 업계다.

문제는 외래어표기법이 아니다. 왜 이렇게 표기가 돼야 하는지 세세히 알 것 없이, 국어사전을 들추거나 표기 용례집을 구해 그대로 가져다 쓰면 외래어표기법은 간단히 풀린다. 새로 유입되는 IT 전문용어들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차례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토박이말(어쩔 수 없이 한자어가 많이 쓰이겠지만)로 최대한 바꾸어 쓰는 일이다.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래 말의 어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해 받아들이는 것. 'relay'를 '릴레이'로 쓰는 경우와 '이어달리기'로 쓰는 경우다. '계주'라는 말도 쓰는데 이어달리기라는 좋은 우리말을 두고 억지로 갖다 쓸 이유는 없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대치할 말을 찾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릴레이로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싱글 사인온 보안에 대한 B2B 사이트의 수요가 늘면서, 최종 스펙 발표를 앞두고 벤더들이 애플리케이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톨은 프론트엔드와 API를 제공함으로써 IT 매니저들이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돕는다." 한 전문지 최근 호에서 발췌한 뉴스 기사 중 일부다. 영어가 많아 답답해서 그렇지 문장 자체로는 별 흠이 없다.

하지만 싱글 사인온을 단일 서명으로, 사이트는 쪽으로, 스펙은 규격이나 사양으로, 벤더들은 공급업체로, 애플리케이션은 응용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대로 둔다면 뒷 문장의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한국식 표현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 프론트엔드는 시스템의 앞단이라고 해도 괜찮겠고 API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매니저는 관리자, 모니터링은 이 문맥으로 볼 때 관리 또는 감시라고 바꾸어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이 정도는 고칠 만하기에 예로만 것이기도 하다. 도저히 고치기 어려운 단어도 있다. 예를 들면 IT 분야에서 흔히 쓰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메시지, 웹 사이트, 해킹, 워크스테이션 등등은 이제 어찌할 수 없게 됐다. '스키마'는 기법으로 한꺼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단어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이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다. 서치엔진도 '검색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니 검색엔진 정도가 낫다.

부적절하게 바뀐 영어나 약어도 문제다. 흔히 쓰는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고객관계관리(CRM). 솔직히 이상하지

않은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어색하거나 부적절하다. 기업자원관리나 고객관리라고 하면 좀 낫다. 인터넷 포털사 이트들이 자주 쓰는 '충성도'라는 용어도 미국 인터넷 기업이 사이트를 자주 찾아오는 성향을 설명하면서 쓴 로열티(Loyalty)라는 단어가 직역된 탓이다.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영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게 문제였다.

IT 전문지 편집자가 빠지는 함정

사실 앞서 고쳐본 문장 속 단어의 뜻은 세세하고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무조건 응용프로그램으로 바꿔 쓸 수 있는가. 단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 단어만이 그걸 가장 잘 표현한다, 그렇게 고치느니 영어 발음 그대로 쓰는 게 낫다. IT 전문지 편집자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기우다.

우리 기자끼리만 하는 얘기로 잠시 돌리자. 독특한 독자들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독자는 그렇게 민감하게 따지지 않는다. 내용의 잘잘못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말로 바꿔보고자 한 단어를 가지고 시비를 걸 독자는 많지 않다. 쉽게 그들을 이해 시켜주는 일이 더 급하다. 거부감이 들 만큼 콕 막히는 문장 때문에 몇 장 넘기다말고 책을 덮어버린다면 손해는 책을 만든 기자들 몫이다. 독자를 혼란시킬 생각을 해야 한다.

나는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KICRA)가 전문지 중견기자를 참여시킨 '용어통일분과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표기를 통일하는 작업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e프로그래머먼트' 같은 신종어가 들어오면 안전에 부쳐 'e조달'로 바꿔 쓰자고 하든 그냥 그대로 가자든 통일하면 된다.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부 전문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목에 내세울 때 너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App'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어느 전문지나 고민하는 것



이라 좋은 안전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작업은 IT 전문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실 전문화한 독자들에게 IT 전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중 일간지나 방송보다 우월하다. 새로 등장한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우리말로 바꾸거나 헛갈리는 용어를 하나로 바로잡아 게재한다면 일간지나 방송에서도 뒤따라 쓰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전문지는 참고서로 쓰이고 있다. 참고서로서 역할은 어느 한 매체의 힘으로 되지 않고 통일 조직인 기자협회 차원에서 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용어통일 작업은 손쉬운 검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미국의 극비 감청 시스템인 'ECHELON'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 단어가 언론에 등장하는데 한글 표기가 '에셜론'과 '에셀런'으로 다르게 표기된 적이 있다. 검색엔진 창에 어떻게 입력하느냐 따라 검색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검색엔진에 동의어사전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언론 스스로 외래어를 통일해 표기해주는 것이 공신력도 있고 훨씬 바람직하다. 신문사의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교열기자협회가 나서 용어를 통일해 준다.

IT 분야에서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외래어로 굳어져 우리말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면, IT 전문 언론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작업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선불리 우리말로 바꿨다간 독자들이 더 이해가 안 갈 것이라든 생각은 접고 작업에 임해주었으면 한다. 규칙을 만들고 독자에게 그렇게 따를 것을 계몽하는 작업도 전문 미디어로서 보람있는 일이다. **KICRA**